

CHRIS MARTIN
JONNY BUCKLAND
GUY BERRYMAN
WILL CHAMPION

COLDPLAY

브리티시 모던락의 전설로 기록 될 밴드



Coldplay (콜드플레이 / 크리스마틴(V), 존 버클랜드(G), 가이 베리맨(B), 윌 챔피언(Dr) / 2000년 7월 ~ 현재 활동 중)

콜드플레이는 1996년 크리스마틴을 주축으로 Univercity College London 동문들과 함께 결성된다. 처음 결성하던 당시에는 원래 팀 이름은 스타 피쉬였다. 크리스 마틴은 같은 학교 동문인 팀 라이스 옥슬리(Tim Rice-Oxley)에게 팀의 건반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때 이미 팀은 'Keane'이라는 팀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이를 거절했다. (훗날 Keane 또한 Everybody's changing이라는 곡의 히트로 스타가 되었다.) 콜드플레이는 스타피쉬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EP를 3장 정도 발매하며 활동하다 드디어 1999년 메이저 음반 레이블인 '팔로폰(Parlophone)'과 계약을 하게 되었고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 처음 서게 되었다. 관객들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EP를 추가로 발매하고 공중파에도 그들의 노래가 방송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룰을 정하기로 한다. U2나 R.E.M.같은 밴드들처럼 사회적인 이슈에 기여할 것, 또 하나는 어느 누구라도 마약을 하게 되면 팀에서 떠날 것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이었다.

콜드플레이는 본격적으로 1집 앨범 작업에 들어간다. 처음에는 2주 정도의 녹음일정을 잡았으나 계속되는 공연일정 때문에 8~9개월로 늘어나게 되었다. 3장의 EP를 발매했지만 별다른 히트곡이 없던 그들은 1집 앨범 작업기간에 나온 싱글 'Shiver', 'Yellow'가 각각 싱글차트 Top 40과 Top 5에 랭크되었다. 드디어 2000년 7월 정식 발매된 1집 '파라슈츠(Parachutes)'는 발매하자마자 UK 앨범차트 1위로 데뷔하게 된다. 앨범에 'Trouble' 등 다양한 곡이 사랑을 받게 되고 2000년 머큐리 시상식에 노미네이트되기에 이른다. 이후, 그들은 미국으로 눈길을 돌려 미국에서도 같은 해 11월에 정식으로 1집 앨범을 발매하고 미국 클럽 투어를 이듬해 2월부터 시작한다. 그 해 2월 2001 Brit Awards에서 콜드플레이는 최우수 영국그룹상과 최우수 영국앨범상을 거머쥐게 된다. 이에 힘입어 판매량은 2백만장을 넘게 되고 2002년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최우수 얼터너티브 앨범상을 수상하게 된다. 콜드플레이는 앨범발매와 공연을 동시에 진행하며 천천히 음악성을 인정받으며 성장했으므로 그들의 1집 'Parachute'도 다소 느린 속도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평단과 대중의 확실한 인정에 힘입어 락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전작 '파라슈츠(Parachutes)'의 성공을 뒤로 하고 콜드플레이는 2001년 9월 스튜디오로 돌아가 2집 'A Rush of Blood th the Head' 앨범작업에 들어간다. 2집 앨범 중 'In My Place'를 앨범의 리드싱글로 발매하기로 한다. 이 곡이 2집 앨범 작업에 대한 동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1집 앨범의 대성공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음악활동을 이어나가야 할지 모르던 당시에 탄생한 곡이어서 그 의미는 더 컸다. 이 곡의 탄생 이후 다른 곡들의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스무곡 이상의 곡들을 작업하며 'Clocks', 'The Scientist' 등의 명곡이 탄생하였다. 2002년 8월에 이 앨범은 정식 발매되었고 이후 1년간 월드투어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작은 무대의 출연자로서 참여했던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 드디어 공동 헤드라이너로 서게 되었다. 달라진 그들의 위상을 반증하는 결과였다. 이후, '브릿 어워드'나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등의 무대에 서며 그들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2003년에 저명한 음악잡지인 롤링스톤스는 콜드플레이를 올해의 밴드로 발표하기에 이른다. 콜드플레이의 2집 앨범은 2003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얼터너티브 음악상을 수상하고 앨범 수록곡인 'Clock'은 2004 그래미 어워드에서 가장 저명한 상 중에 하나인 '올해의 레코드'를 거머쥐게 된다.

2004년의 대부분을 각종 매체들의 집중조명 속에 보낸 콜드플레이는 이후 휴식기를 가지면 3집 앨범인 'X&Y'를 작업한다. 2005년에 3집을 발매하게 된다. 전작들과 달리 3집이 좀 늦게 나오게 되면서 앨범유통사인 EMI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도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3집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830만장의 판매고를 올리게 되고 이 앨범은 2005년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다. 3집 'X&Y'는 발매와 동시에 20개 국가의 앨범차트에서 1위로 랭크되었다. 리드싱글인 'Speed of Sound'와 'Fix You', 'Talk' 등이 히트싱글로 자리매김했고 뉴욕타임즈는 콜드플레이를 이번 10년간 가장 영향력있는 밴드로 선정한다. 그리고 여러 매체들은 이들을 이들의 우상인 U2와 함께 비교할 정도로 밴드의 위상은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밴드의 인터뷰를 보면 3집을 작업하면서 이들은 본인들이 갑작스레 유명세를 타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그것들이 자신들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이러한 족쇄를 거부하고 새로운 사운드로 팬들에게 화답했다.

2006년 콜드플레이는 휴식기 겸 4번째 앨범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을 여행하며 연주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토속적인 느낌에서 영감을 받아 4집 앨범의 모티브를 잡게 된다. 타이틀 곡인 'Viva La Vida'가 그 방향성을 제시한 곡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작들에 비교해서 더욱 넓어진 사운드의 공간감과 토속악기들의 사용, 그리고 몽환적인 느낌이 더욱 강해진 앨범으로 앨범의 타이틀인 'Viva La Vida'는 생애 처음으로 이들에게 빌보드 핫100 차트와 UK 싱글차트 1위를 선사하게 된다. 이 앨범은 2008년 한 해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고 콜드플레이는 그래미어워드에서 올해의 노래, 최우수 락앨범, 최우수 보컬 팝 퍼포먼스 세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이 앨범이 처음 만들어지던 당시 관계자는 노래가 너무 대중적이지 못하다고 염려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려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한 그들의 선택이 적중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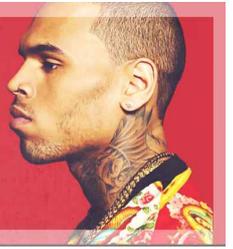
이후 이들은 Mylo Xyloto, Ghost Stories, A Head Full of Dreams 등의 음반을 연이어 발표하며 이들의 우상인 U2와 같이 스타디움에서만 공연을 하는 대형밴드가 되었다. 최고의 팝스타들만 선다는 NFL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서는 등 이들은 계속해서 뮤지션으로서 자신들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Modern K Music Academy 영상수업

Chris Brown

모든 재능을 갖춘 최고의 뮤지션



Chris Brown (크리스 브라운 / 가수,싱어송라이터,댄서,배우 / R&B,POP,HIPHOP,DANCE / 2005년 ~ 현재 활동 중)

크리스 브라운(Chris Brown)(본명:Christopher Brown 출생:1989년 5월 5일 (미국) ~)은 미국의 알앤비 가수 겸 배우이다. 그는 버지니아 주 태생이며, 어렸을 때부터 힙합, 알앤비음악에 관심을 보였다.13살 때 그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데프콘 레코드로 픽업된다.하지만 2달 후 그는 자이브 레코드로 옮긴다. 그리고 교회 성가대에 참여를 했고, 몇몇의 지역 탈렌트 쇼에도 참여를 했다. 현재 자이브 레코드 (현 RCA 레코드) 소속이며, 2005년 6월 30일, Run It! 으로 데뷔한 크리스 브라운은 첫 데뷔곡인 Run It을 빌보드 1위 차트에 올리며 팝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16살임에도 안정적인 가창력과 뛰어난 춤실력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크렁크라는 흔치않은 장르임에도 데뷔 싱글을 빌보드 1위에 안착시키고 이후 발매한 첫번째 앨범 Chris Brown을 빌보드 앨범차트 2위에 랭크시키는등 제 2의 어셔, 제 2의 마이클 잭슨 소리를 들으며 팝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싱글이 발매된지 몇 개월이 지난 11월 29일 크리스 브라운은 16살의 나이로 본인의 첫 앨범인 Chris Brown을 발매하며, 이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220만장을 팔아치우며 신인으로써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다만 이 당시 음반 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기에, 1~2년전에 나왔으면 3,400만장도 무리가 아니었을 것이란 말이 많을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들어진 앨범, 게다가 몇몇곡은 크리스 브라운이 직접 작곡에 참여하여 작곡가로써의 재능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7년 두 번째 정규앨범 'Exclusive' 를 발매한다.이 앨범은 첫 주에 24만 장이 팔렸고,빌보드 200에서 4위로 데뷔한다. 리드 싱글인 'Wall to Wall' 은 빌보드 싱글차트에서 96위로 데뷔하여 22위까지 올라갔지만 전 앨범의 리드 싱글인 Run It을 빌보드 1위까지 올린 크리스 브라운에게 그다지 만족스러웠던 성적은 아니었다.이후 본인이 작곡한 두 번째 싱글이자 대히트 싱글인 'Kiss Kiss' 는 T-Pain이 작곡과 노래에 직접 참여했으며, 미국, 뉴질랜드에서 모두 1위를 했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도 상위권에 있었다. 다음 싱글인 'With You' 는 2위를 기록했고,전 세계에 상위권 차트에 들어갔다. 특히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아이슬란드, 영국,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10위 안에 든다, 이후 발매한 싱글 Take You Down은 빌보드 43위밖에 하지 못했으나, 크리스 브라운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하여 크리스 브라운은 춤 잘추는 소년 가수에서 섹시한 남성 가수로 이미지 변화에 성공했다, 2008년 디럭스 앨범인 'Exclusive: The Forever Edition' 을 발매한다.이 앨범에서 'Forever' 가 빌보드 2위까지에 올랐으나, 당시 케이티 페리와 리한나가 서로 1위를 하던 상황이었기에 결국 1위는 하지 못하고 차트 아웃했다.

2011년 네 번째 정규앨범 'F.A.M.E.' 을 발표하게 되는데, 전까지 이어오던 팝 노선을 과감하게 버리고 힙합으로 주 장르를 변경하여, 이미지 개선에도 성공하고, 음악적으로도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등 크리스 브라운을 회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앨범은 음반 불황에도 전 세계적으로 100만장 넘게 팔아치웠으며 크리스 브라운에게 첫 앨범차트 1위를 안겨주는등, 대성공했다.

이 앨범에는 릴 웨인, 버스타 라임즈, 타이가, 루다크리스, 팀발랜드, 게임 등이 참여했으며, 대표 수록 곡은 'Look At Me Now', 'Yeah 3X' 등이 있다.

2012년 그는 'Fortune' 이라는 앨범을 가지고 나온다. 나스, 빅 선, 위즈 칼리파 등이 앨범 작업에 참여 했다. 그는 앨범 발매에 앞서 'Turn Up the Music' 이라는 곡을 싱글로 먼저 냈는데 이 곡은 강한 클럽 사운드가 특징이다. 이 싱글은 빌보드에서 10위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Sweet Love 와 Till I Die를 싱글컷했으나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4번째 싱글 Don't Wake Me Up이 빌보드 10위에 올라서며 어느정도 체면치레를 했다, 4집이 힙합이 주였다면 5집은 일렉트로닉이 주가 되었는데, 이 음악적 변화도 성공하여 4집에 이어 또 다시 앨범차트 1위를 거머쥐었다

2014년 10월 여섯 번째 정규앨범 'X' 를 발표했다. 리드싱글 'Fine China'가 발매된 이후 1년만에 정규 앨범이 발매된 셈으로 다른 팝가수들과 비교했을때도 리드 싱글과 정규 앨범 발매의 텅이 매우 길었다. 또한 리드 싱글을 제외하면 5집처럼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강한것이 특징, 다만 이후 발매한 싱글들은 Loyal이 빌보드 9위에 랭크된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진했는데, 앨범의 곡 구성이 너무 단조로웠던게 문제였던듯하다, 그러나 앨범의 곡 구성이 단조로운것이 역으로 앨범 자체는 성공시켰는데, 앨범 차트 2위에 올라서는등 괜찮은 성적을 거뒀다.

2015년 가을 중으로 정규 7집 'Royalty'를 발매할 예정이다. 근래 들어 흑인 아티스트 중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11월 25일로 발매될 예정이었던 Royalty 앨범이 12월 18로 미뤄짐에 따라 royalty 에 수록예정이었던 몇 노래를 끼워서 대국민 구호 믹스 테이프'before the party'를 공개 했다 snippet로 애간장을 타게했던 till themorning, ghetto tale , right now등등 엄청난 노래들과 무려 30곡에 달하는 물량을 공개했다.

2015년 12월 18일 앨범이 공개되었다, Royalty는 크리스 브라운의 딸 이름인데, 딸에게 헌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디럭스 에디션도 차례로 빠르게 공개되었으며 , 첫번째 싱글인 Liquor가 60위 피크를 찍고 물러나, 이번 앨범은 그대로 묻히나 싶었지만 3번째 싱글 Back to Sleep이 64위로 차트에 진입한 후 12월 31일 차트에서 53위로 오르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으며 2번째 싱글 Zero가 80위로 차트에 진입, Liquor가 77위로 차트에 재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싱글로 내지도 않은 노래인 Little More (Royalty)가 차트 91위에 올라서며 이번 앨범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하게 되었다.

신보 Royalty가 발매가 된 지 채 반 년도 안 된 2016년 5월 3일, 크리스 브라운이 본인의 트위터로 5월 5일에 새 앨범의 리드 싱글을 발매할 예정이며 새 앨범의 제목은 "Heartbreak on a Full Moon"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래서 낚시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5월 5일 정말로 새 싱글이 발매되었다! 제목은 Grass Ain't Greener. 정말 엄청난 활동량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MODERNK MUSIC ACADEMY